



세계한국학전주비엔날레 2018
2018 Jeonju International Biennale of Korean Studies

21세기의 한국학 도전과 응전

Korean Studies in the 21st Century : Challenges and Responses

주최 | 전주시, 전북대학교(인문역량강화사업추진단)

주관 | 전주시, 전북대학교 인문역량강화사업추진단, 한스타일연구센터

후원 | 전라북도



현대 카자흐 및 한국 시문학의 특징

Bagzhan Sermukhametova | Kazakh National University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카자흐시와 작가의 작품 사이의 차이점을 논의하여 현대 한국과 카자흐시의 가치를 비교한다. 이 두 나라의 현대시, 예술적 특색, 한국인과 카자흐족의 스타일, 유사점 및 차이점을 분석했다. 동시에, 카자흐어시의 국어 특성과 중요성이 널리 논의되었다.

키워드: 예술적 특색, 시의 정의, 내용, 장르, 전통시, 한국 문학사, 김소월의 시문학, 문학 작품.

In this article by using comparative analysis method we will research about Korean and Kazakh national poetry's values, also differences and specialties between Korean and Kazakh poets and their compositions. Importance of poetry between two nations, artistic features, their styl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and Kazakh people's poetry were analysed. At the same time, Kazakh language specialties and their importance are discussed at this article.

키워드: poetry language, the artistic features of poetry, poetry determination, content, type, style, Kazakh lyric, national tradition, Poetry of Kim So Wol,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Kazakh poetry, literary movement.

본 논문에 관해서는 또는 시의 내용과는 별도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시 및 주요 특징의 언어는 작품의 이차적 내용을 발견하는 요구 사항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예술적 일뿐만 아니라 예술적이고 비유적이다. 시의 힘은 시의 예술적 특성, 사상의 힘은 효율성이다. 시는 언어, 시에 대한 시적인 표현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삶의 진실을 생각, 감각 및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한다.

카자흐 및 한국 시문학에서 주요 시인들을 발견하는 것은 또는 사회적 주제를 설명하고 작가의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해한다는 사실이다. 시의 세상은 그 자신의 복잡성과 위대함이다.

카자흐 민족의 시는 모든 영역 - 문화적 보물의 역사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치있는 것 중 하나이다. 수세기 동안 카자흐 민족의 전통과 라이프 스타일에서 선도적인 예술이 되었다. <시>는 고귀한 예술이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의 기능에 따라 창의적인 활동은 작지만 약간의 압박감이 있다. 시는 자유로운 언어로 표현되므로 소리, 그림, 지각, 명확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다른 예술의 모든 요소는 시에 있으며 마치 하나의 방법으로 개별 예술의 모든 개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시는 전체 예술의 유산이며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모든 기능을 명확하고 긍정적으로 축적했다. <라고 V.G. Belinsky가 말했다 [2, 13].>

사실이 시는 삶, 자연, 인간 관계, 국가 전통, 영웅권 및 교육에 관한 카자흐민족 사람들의 예술 지식 반영한 것이다. 그것은 인구의 비판적, 미학적, 철학적 및 윤리적 전망을 반영한다.

시의 예술적 특성은 외부 소수 민족의 특색이 아니지만 장르와 예술적 구분에서 시적, 시각 보조 도구 같은 독특한 특징은 수사학적이고 풍부한 연설의 사용에 널리 사용된다. 그래서 시와 시에서 생명 현상에 대한 은 감정적으로 민감한 인식이 중요하고 인상적이며 매력적인 예술이 된다. 그러나 시에서는 사람의 생각이 일하게 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생각, 소설, 다른 분야의 사고 체계, 감정의 세계의 특징이다. 시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매우 초기이다. 고대부터 민속 문학이 성장한 시이다. 시인의 시의 정의는 과학적 접근에 평론가가 계속할 수 있다. 사실, 시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것은 좁은 차원이며, 그것을 용인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두 의견 모두 공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는 생각과 느낌의 예술적 동반자이고, 두 번째는 이를 위한 것이다.

그것은 흥서받을 수 없는 노래 일 수 없다. 그것이 시라면, 낭비되는 단어이다. 그리고 시의 성은 비유적, 비유적 사고, 상상 속의 세계, 상상의 시적인 정신 및 현상의 상징이다. 그들의 장소와 시편의 조화로운 사용하는 것은 기술, 시적 걸작이다 [5,126].

O. Suleimenov는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확장하는 방법과 카자흐스탄 시의 극적인 복잡성,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예를 보여주었다. 그는 햇볕, 불꽃을 아주 좋아한다. 대초원과 산악 지대의 튜립은 그의 시에서 흔적이다.

예: Қария тарих - қаптаған жалын
Лап етіп жанған түздерде,
Алауға атам қақтаған жанын,
Аңызы қалған біздерге,

전설은 우리에게 남아있다 <말했다. O. Suleimenov의 시 (K. Ali가 번역한 <Semser>)는 영감을 통해 작가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시, 몸짓으로 묘사된다.

Olzhas시의 주요 영웅은 지구에 있다:

Қазып қалшы күрегіңмен жер бетін,
Табасың сен көшпелі елдер бабасын,
Қарғап өткен қаніпезер жеңдетін,
Бабалардың нәлет сөзін табасың,
Тек қарғыспа? Үміт отын табасын, - 그가 미래로 돌아갈 지 물어 보았다:
Жылдар өтер табысар адам баласы,
Қылетпестей тату болып парасы... -

이는 그가 자신의 이들을 화합과 평화와 조화로 부르며 철학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자흐스탄 시인 Olzhas Suleimenov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성을 능숙하게 설명한다. 그의 시 <Aksak Kul>는 슬로건이 있지만 주인공은 남자이다.

시인의 구절은 성실과 연민을 보여준다. 시인은 카자흐 민족에 대한 전국적인 게임을 보여 주며 삶의 어려움을 개발함으로써 시인의 삶과 행동을 잠깐 보여준다. 시의 예술적 창조성, 권력의 감각, 카자흐스탄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 여기서 내면의 멜로디는 강철 발굽의 단결과 독자의 심장 리듬에서 볼 수 있다. 한국 문학 발전의 새로운 시대는 다양한 문학적 동향과 도구의 출현으로 특징 지어진다. 이시기의 작품의 내면이 깊어지고 작가는 작품의 삶의 목적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고 세계관과 비전을 통해 다른 상황에 처한 사의 영혼과 슬픔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 한국 문학의 발전은 다양한 종교의 영향과 동양 철학이 한국 전역에 퍼지면서 영향을 받아야 한다.

문학에 기여하는 자신의 예술적 스타일의 유산으로 여겨지는 한국의 시는 모든 인류에게 그 열매를 맺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슬픔, 눈물, 슬픔은 시인들의 시에서 볼 수 있다. 1920년대부터 프랑스 시인들의 시가 신문, 잡지, 그리고 영감을 얻은 한국 시인들에게 출판되었다. 그런 다음 한국시의 새로운 시대에는 시의 장르인 《시조》의 형태로 시의 장르 《가사(kasa)》의 형태를 따르지 않은 새로운 시가 있었다. 이전에는 시 3 편의 시였

다 한국의 시는 김소월 (Kim Sowol)과 한용운 (Han Yong Un)의 시에서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전통 색채와 민족의 노래로 유명하다. 그것이 양날의 한국 시라고 말할 수 있다. 김소월의 시는 낭만적이고 문학적으로 예술적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그의 인생, 눈물, 슬픔과 고통은 영원한 보물의 영원한 보물에서 볼 수 있다. 김소월은 시를 민요 또는 전통 시로 불렀다.

그들의 유명한 시인들은 그들의 시가 《한문》으로 쓰여졌고 《시조》와 《가사》라는 장르에 한국시를 쓴 것은 당국에 소속되어 시인이라고 종종 말하지 않는다. 1925년 스물 세 살짜리 김소월은 그의 유명한 《진달래꽃》 컬렉션을 출간했다. 꽃 재배 꽃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가 상징 중 하나이다[8,167-170].

김소월

꽃
 내 보기가 역겨워
 내일 때에는
 내일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약산
 꽃
 내를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내는 걸음 걸음
 내 그 꽃을
 내 손에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내 보기가 역겨워
 내일 때에는
 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 시에서 그는 그의 작별 인사의 심각성으로 그의 사랑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한다. 《내가 죽으면 눈을 떠서 내 보기를 것》이라고 그는 말하지만 그는 고통스럽다. 슬픔의 중력이 있다.

김소월은 민속 그의 예술의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시인은 그의 창의력을 민요와 밀접하게 관련시켜서 제한할 수 없다. 과학자에 따르면, 음호숙, 자연의 김소월의 시는 시적 감각, 비극의 기본 도구와 꿈의 하나라 미적 이상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다고 [8,170] 말한다. 본질적으로 시인은 사회에서 비극을 경험한다. 그의 시의 본질은 인간의 본성과 본성에 의해 특징을 자어진다[8,185,186].

김소월

내 산마루에 저물어도
 내 산마루에 저물어도

내게 두고는 당신 때문에 저됩니다
 해가 산마루에 올라와도
 내게 두고는 당신 때문에 밝은 아침이라고 할 것입니다
 땅이 꺼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내게 두고는 끝까지 모두다 당신 때문에 있습니다
 다시는, 나의 이러한 맘뿐은, 때가 되면,
 그림자같이 당신한테도 가오리다
 오오, 나의 愛人이었던 당신이여!

이 시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간의 사랑을 준다. 이 세상의 목적과 본질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침에 빛 나는 일몰, 태양, 사랑하는 모든 사랑에 세워진 모든 것이다. 실제로 그것은 무한한 사랑의 시이다.

김소월의 시는 일본 식민지 시대의 한국 국민의 비극과 슬픔을 씻어 내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한국인의 정한 삶을 증명할 수 있는 시선이다. 시인들에게 시를 쓰는 사람은 시인의 가명을 보면 그의 시가 비유를 달고 있다고 말한다 [9, 33].

결과적으로 시적 구성의 특이성은 그것이 생명 현상에 감정적으로 민감하다는 것과 인상적이고 매력적인 예술적인 예중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시의 역사, 국가 문화적 가치, 특징 및 차이점은 양국 모두에 관련되어 있다.

시 는 언어의 예술, 세계의 거대한 사회 현상의 가능성을 나타낼 수 말하기 유적으로 예술적인 장인의 사회적, 전례없는 완벽한 예이다, 인생은 우리의 공공 의식, 예술, 미적 감정을 알아 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와 제품의 필드이다. 따라서, 시의 언어, 이미지 영양, 언어 현실의 사용, 흡수하고, 껍질을 예술적 생각과 력 깊은 뿌리를 이해하는 삶, 지식, 능력의 예술 수준의 현상이다. 시는 그렇게 도시의 중요성을 수행, 시를 통한 전국 문학의 발전에 매우 귀중한 공헌, 젊은 세대에 대한 예제 남아 있다.

참고 문헌

- Әшімбаев С. Шындыққа сүйіспеншілік. – Алматы: Жазушы, 1993. – 621 б.
- Белинский В. Г. Статьи и рецензии. – Москва: Московский рабочий, 1971. – 464 с.
- Қаратаев М. Әдебиет және эстетика. – Алматы: Жазушы, 1970. – 368 б.
- Қазақ поэзиясындағы дәстүр ұласуы. – Алматы: Ғылым, 1981. – 320 с.
- Қабдолов З. Сөз өнері. – Алматы: Санат, 2002. – 360 б.
- Құнанбаев А. Шығармаларының екі томдық толық жинағы. Өлеңдер мен поэмалары. – Алматы: Ғылым, 1977. 1 т. – 454 б.
- Брюсов. В. Ремесло поэта. //Избранные соч. – Москва, 1955. – 2 т. – 200 с.
- Солдатова М.В., Пак К.А. Новая и новейшая литература из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003. – 645 с.
- 《한국현대시인연구》, 도서 출판:월인, 2003; 지은이:오세용.